

〈제 746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다다캠프 진행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호남지역 다문화가정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다다캠프(多채로운 多문화캠프)’를 진행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에는 솔선수범은 물론이고 투철한 봉사 정신을 가진 JB금융그룹 임직원으로 구성된 ‘씨앗봉사단’과 관계자 20여명이 함께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다문화 특강’에는 최근 한국으로 귀화한 가수 ‘강남’을 특별 게스트로 초청하여 ‘문화적 차이 극복 방법 및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함께 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우리 호남지역은 타지역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부방 개선 및 지원, 다문화 청소년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지역 소외계층에게 필요할 때 적시 지원을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을지연습 안보교육 특별강연 실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18일 본점에서 한명기 명지대교수를 초빙하여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격변기에 성찰하는 한국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에 마련된 이번 특별 강연은 국제정치적 갈등 속에서 안보의식을 고취 시키고, 한·중 경쟁 심화 및 미·중 무역갈등 등

주변국들의 정세에 민감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그에 따른 위기의식을 공유하고자 마련 되었다.

특별강연에 참여한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 성찰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주)광주신세계는 지난16일 대한적십자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임직원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이번 헌혈 캠페인 행사를 통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전달됐으면 한다”며 “광주신세계는 헌혈활동에 대한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나눔 · 기부활동을 접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전기차 타이어 테슬라 뚫었다.

KUMHO TIRE
All-Ways, Go With you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금호타이어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 공급을 늘리고 있다. 올초 폭스바겐을 고객사로 확보한 데 이어 테슬라에도 신차용 타이어(OE) 납품을 시작했다. 해외 완성차 업체들의 주문이 늘면서 현지 생산 비중이 올 상반기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더 무겁지만 순간 가속도는 훨씬 빨라 전혀 다른 설계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베스트셀러를 노리는 모델 Y가 금호타이어를 선택한 것은 전기차 타이어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기아AutoLand광주



기아 AutoLand광주는 9일 지역사회 보육시설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청소년 꿈 설계 진로탐색 프로그램'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 꿈 설계 프로그램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2차수에 걸쳐 진행됐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선정된 지역사회 보육시설 청소년 60명이 참여했다. 청소년들은 소방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기아 AutoLand광주 2공장 견학을 통해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해양조

◆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이색 라벨 ‘눈길’



주류전문 기업 보해양조(대표 임지선)는 자사 대표 제품인 ‘잎새주’ 후면 라벨을 활용해 ‘전세사기 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 7월 말부터 60만 여병의 ‘잎새주’ 제품 뒷면에 전세사기 예방 홍보 라벨을 부착해 공급하고 있다. 라벨 속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전세사기 예방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된다.

전남경찰청과 함께한 보해의 이번 캠페인은 퀴즈를 풀고 지인에게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의 소비자 참여형 콘텐츠로 기획돼,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메시지를 신선한 방식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

◆ 사업장 재해예방 지원책‘마련’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본부장 김무영)가 다양한 지원 사업을 내놓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공단은 올해 9가지 시설·금융·교육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산업현장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무영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장은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은 공단의 힘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근로자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616회 금요조찬포럼〉

· 주제 : ESG법제화와 기업의대응 · 강사 : 김광기 (ESG경제 대표)

1616회 금요조찬포럼은 ESG경제 김광기 대표를 초청하여 「ESG 법제화와 기업의 대응」를 주제로 ESG 공시의무화 시행과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ESG공시가 2025년부터 유럽에서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를 위해서 KSSB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언뜻 보면 상장하지 않은 기업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상장사의 협력업체들은 ESG공시 의무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이 만든 제품을 원자재부터 제품이 완성되는 모든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얼마나 됐는지, 착취적인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제품이 폐기될 때 재활용 까지도 포함됩니다.

ESG관련 공시대상이 아니라 ESG경영을 준비하지 않는 기업은 대기업 공급망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완제품을 만드는 생태계 정점에 있는 기업들도 국가의 규제에 의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유럽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1년 입법 하였으며, 유럽 내 탄소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도 ESG공시 기준이 올해 3분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시기준이 나오면 2025년부터 대기업부터 공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25년에 공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24년도 자료를 가지고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ESG를 하는데 있어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민감하고 해결하기 힘든 요소가 뭐인지를 파악하고, 관련 내용이 법제화가 됐을 때 우리 회사에 어떤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전략과 리스크 대응 방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 경영 및 생산 프로세스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모든 경영환경을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직원 개개인이 ESG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부서별, 사업별로 확장시켜 데이터를 만들고 구축해야합니다. ESG경영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당장 내년에 대기업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탄소배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가져오라고 하면 준비가 안되어있는 기업은 제출할 수 가 없습니다. ESG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물건을 팔아 매출을 올리는 일상과 같은게 됐습니다. 경충회원들도 ESG경영을 잘 준비하셔서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1. 경제 동향

◆ 한국은행, 「2023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8.17)

- 2023년 7월 수출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내렸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이 오르며 전월대비 0.1% 상승(전년동월대비 12.8% 하락)

* 원/달러 평균환율(원) : 1,296.71('23.6월)→ 1,286.30('23.7월) [전월대비 0.8% 하락]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1.7% 상승(전년동월대비 12.4% 하락)

- (공산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제1차 금속제품 등이 내렸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이 오르며 전월대비 0.1% 상승(전년동월대비 12.8% 하락)

- 2023년 7월 수입물가는 제1차 금속제품 등이 내렸으나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물,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4% 상승(전년동월대비 13.5% 하락)

* 두바이유가(월평균, 달러/bbl) : 74.99('23.6월)→ 80.45('23.7월) [전월대비 7.3% 상승]

※ 수입물가는 지난 5월(△3.1%)과 6월(△3.9%) 전월대비 하락했으나, 7월에 다시 상승 전환함.

▶ 최근 수입물가 추이(% , 전월대비) : 0.8('23.3)→ 0.4(4)→ △3.1(5)→ △3.9(6)→ 0.4(7)

- (원재료)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1% 상승(전년동월대비 21.3% 하락)

- (중간재) 석탄 및 석유제품이 올랐으나 제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1.1% 하락(전년동월대비 12.6% 하락)

- (자본재 및 소비재) 자본재는 전월대비 0.3% 하락했고, 소비재는 전월대비 0.5% 하락(자본재 전년동월대비 1.3% 상승, 소비재 3.4% 하락)

◆ 국제금융센터, 「미국의 경기 향방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8.14)

-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의 경기 향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금년

Ⅲ. 노동경제동향

4분기부터 완만한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으나 최근 연착륙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밝힘.

○ (연착륙 주장의 배경) 견조한 성장과 물가상승률 둔화의 우호적 조합과 함께 잔존 긴축효과도 크지 않을 가능성 등 제기

❶ (민간주도 견조한 성장) 미국 경제는 1분기 2.0%, 2분기 2.4% 성장했는데, 국내 민간 최종 구매액(PDPS) 증가세가 성장을 견인. 민간소비와 투자를 반영하는 PDPS의 2분기 2.3% 증가는 강력한 성장 신호로 경제가 순항하고 있음을 시사.

❷ (디스인플레이션 확산 조짐) 최근 2개월간 근원 서비스 PCE* 물가 항목들이 동반 하락. 기업이익 축소가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도 상존.

*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 : 미국 전역에서 가계와 민간 비영리 단체가 소비한 모든 물품과 서비스의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❸ (긴축효과의 상당부분 경제 기반영 가능성) 긴축효과가 이미 상당 부분 경제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작년 금리 인상분의 잔여 긴축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

○ (시사점) 고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민간주도의 견조한 소비와 기업투자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를 회피하고 연착륙할 가능성이 증가.

- 다만, 연준의 긴축이 경기침체를 수반했던 역사적 경험과 은행들의 대출기준 강화 등이과거 경기침체기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할 필요

◆ KDB미래전략연구소, 「에그플레이션 우려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8.14)

○ KDB미래전략연구소는 8월 14일 「에그플레이션 우려와 시사점」 이슈브리프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 주요 내용 〉

○ 2023년 ‘슈퍼 엘니뇨’* 발생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우려 확대

* 엘니뇨 감시구역인 Nino 3.4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2℃ 이상 높은 경우

**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Ⅲ. 노동경제동향

- 엘니뇨 발생→농산물 생산 저하→생산량 감소→수출 감소→가격 급등의 경로를 통해 애그플레이션 발생 가능

-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23.7.17일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에 따른 곡물수출량 감소로 가격 상승 전망

*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곡물과 비료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한 협정으로 우크라이나는 해상으로 연간 3,200만t 이상의 곡물을 수출

※ '22년 우크라이나 주요 곡물 수출량 증감률(전년대비) : 보리 △62.1%, 호밀 △61.2%, 밀 △44.1% '22년 러시아 주요 곡물 수출량 증감률(전년대비) : 보리 △70.6%, 밀 △35.3%, 옥수수 △28.5%

○ 주요 곡물 생산국의 가뭄과 홍수 지속에 따른 생산 저하로 수확량 감소 등으로 글로벌 수출량이 줄어들 전망

- 북미, 남미, 프랑스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은 이상고온에 따른 가뭄이 지속되어 결실 부족 등으로 수확량 및 품질 저하로 수출 감소 전망

○ 슈퍼 엘니뇨와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인한 애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해 곡물 수급관리가 필요

- 한국은 쌀, 고구마, 감자 등 일부 곡물을 제외한 대부분 곡물의 자급률*이 낮아,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이 필요

* 곡물자급률 : 사람과 가축이 먹는 식량(사료 포함) 가운데 자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율

※ 한국의 '20~'22년 평균 곡물자급률은 19.5%로 OECD 중에서 최하위권에 위치

▸ 주요국 '20~'22년 평균 곡물자급률 : 호주 327.9%, 캐나다 173.3%, 미국 121.3%, 일본 27.7%

- 특히,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어, 대체수입처 모색 등을 통한 곡물 수급 관리가 필요

2. 노사 동향

◆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논의 가능성 상존

-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으나 여당은 수용 불가 입장 표명

※노조법제2조·제3조개정안은6. 30 국회본회의의예부의

- 여당은 추후 본회의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처리 강행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방침

- 한편, 헌법재판소는 8.22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

※여당은 지난5.31 야당이 환노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안건을처리해 법사위원의 법률안심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 다만, 8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 ▲잼버리 운영, ▲수해대책등 현안 논의가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 8월임시국회본회의는8월4째주(8. 23 또는8. 24) 개최예상

- 한편, 노동계는 양 노총을 중심으로 노조법 개정안 통과 요구를 본격화할 전망

- 민주노총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

◆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포괄임금제 등을 선정한 가운데 경영계는 포괄임금제 금지의 문제점 지적

- 국회 입법조사처는 8. 16「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발간 관련 토론회 개최

* 국회 입법조사처는 매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해 당해 연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정책 이슈 점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난 7. 31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Ⅲ. 노동경제동향

- 국회 입법조사처는 환노위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포괄임금제 등을 선정하고, 포괄임금제 관련 문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한편, 경총은 8. 17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 개최
 - ※주요참석자: [발제] 권혁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정민서울대경제학부교수
- 경총은 이 날 토론회에서 ‘포괄임금·고정OT계약 금지 법안은 시대 역행적이며,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
- 또한, 경총은 국회에 제출된 근로시간 측정·기록의무 부과 법안과 관련해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통제로 인한 노사갈등과 임금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

◆ 여당은 민주노총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폐지 요구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 16 민주노총에 지원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전수조사 결과 발표
 - * 여당은지난5. 29 시민단체부정·부패대응을위해「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발족
- 위원회는 최근 5년간 민주노총이 ▲근로복지시설 위탁 운영비, ▲사무실 등 시설지원 명목으로 약 437억원을 지급받았다고 발표
- 또한, 위원회는 불법폭력 시위 등을 주도한 민주노총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전면폐지 해야한다고 강조

◆ 하반기 공공분야는 공공기관 혁신 등을 둘러싼 노정갈등 심화 우려

- 양 노총 주요 공공부문 노조로 구성된「양 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 16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정교섭 등 요구
- * 공대위 참여 조직 : 금융노조(9만5천명), 공공노련(9만1천명), 공공연맹(8만2천명) <이상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23만6천명), 보건의료노조(7만9천명) <이상민주노총>

Ⅲ. 노동경제동향

- 공대위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 ▲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 등을 교섭의제로 선정하고 기재부에 8월말까지 회신 요구
- 또한, 공대위는 지난 6. 17 ILO 권고를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가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요구 미수용 시 ILO 제소 및 공동행동에 돌입한다는 방침
-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9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을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
 - ※공공운수노조는 8. 9~10 「중앙집행위원회」에서공동파업등하반기투쟁계획확정
- 공공운수노조는 8월말~9월초 쟁의조정 신청 등 쟁의권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나
 - ▲ 공공기관별 교섭 상황, ▲하반기 집행부 선거 등으로 인해 대규모 투쟁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